



왼쪽부터 양궁 기보배·최미선, 육상 100m 김국영, 멀리뛰기 김덕현, 여자골프에 출전하는 김세영·전인지 선수.

광주·전남 스타들 '리우의 별' 되리

Rio2016 광주·전남 출신 선수 경기 놓치지 마세요	
8월7일	11~20일
여자 양궁 단체전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여대) 8연패 도전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화순) 2014년 8월부터 세계 1위 금메달 기대감 높다
남자 양궁 박채순(광주시청) 감독	
10~11일	
여자 유도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첫 올림픽서 금메달 도전	
12일	
여자 양궁 개인전 기보배·최미선	
13일	
멀리뛰기·세단뛰기 김덕현(광주시청) 육상 첫 메달·한국新 도전	
20일	
여자 골프 전인지(함평골프교후) 김세영(영암)	

리우올림픽 D-23

기보배 양궁 단체 8연패
김덕현, 멀리뛰기 첫 메달
전인지·김세영 골프 金 도전

올림픽은 운동 선수에게 '꿈의 무대'다.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을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리우올림픽에는 206개국 1만 명의 스타 선수들이 펼칠 경기를 쟁겨보며 선수단의 메달 시나리오 달성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다.

8월의 리우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일 스타 중에는 광주·전남 출신도 적지 않다. 지역 선수들이 펼칠 경기를 쟁겨보며 선수단의 메달 시나리오 달성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다.

◇광주 여공사 2명, 8·12일 '금빛 과녁' 쏘다=양궁에서는 광주 여공사 2명의 손끝에 한국 여자양궁 올림픽 단체전 8연패 성패가 달려 있다.

최미선(20·광주여대·무안), 기보배(28·광주시청)는 오는 8월 7일 마라카나 삼보도로모(Sambodromo) 경기장에서 여자 단체전 8연패 달성을 위한 시위를 당긴다.

'세계랭킹 1위' 최미선과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가 오는 8월 12일 펼쳐지는 개인전 금메달 레이스도 신궁(神弓) 계보를 잇는 경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박채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도 한국 남자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오는 8월 7일(단체전)·13일(개인전) 김우진·구본찬 등의 흔들림 없는 레이스를 지휘할 예정이다.

◇김덕현, 한국 육상의 자존심 세울까=김덕현(31·광주시청)은 오는 8월 13일(예선)·14일(결선) 마라카나 올림픽 스타

디움에서 멀리뛰기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한국 육상 사상 멀리뛰기·세단뛰기 종목에서 동시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른 선수는 김덕현이 유일하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이라는 간절한 꿈을 위해 '멀리 뛴' 준비를 시작했다. 마라톤을 빼면 올림픽 육상 필드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는 전무하다. 김덕현의 최근 기록(8m22)은 올 시즌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딴 선수가 뜬 기록(8m16)보다 멀리 뛰었다. 당시 금메달 기록(8m31)에도 불과 9cm 모자라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메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김국영(26·광주시청)의 100m 한국 신 기록 달성 여부도 오는 8월 13일 예선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연, 금빛 메치기하나=한국 여자 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순천)이 첫 올림픽 출전을 '금빛 메치기'로 자축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성연은 오는 8월 10일 밤부터 11일까지 바하의 바라 올림픽 파크(Barra Olympic Park)의 카리오카 아레나 2(Carioca Arena 2) 경기장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성연은 지난 2013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맞붙던 세계 랭킹 1위 폴링킵(네덜란드),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데코스(프랑스)를 물리치며 동메달을 따낸 경험이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자신감도 갖췄다.

◇이용대, '금빛 링크' 다시 한번=화순 출신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8·삼성전기)는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있어 달성 여부가 관심사다. 이용대의 한국 남자 복식조는 바하의 리오센터 리오(Riocentro - Pavilion 4) 경기장에서 11일부터 20일까지 금메달 레이스에

나선다.

이용대는 지난 2008년 당시 스무살의 나이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효정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 금메달을 따내고 링크를 날려 스타덤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유영성(30·수원시청)과 짝을 이뤄 2014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세배드민턴연맹(BWF)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

◇전인지·김세영, 금메달 샷 날릴까=112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골프 종목에 테크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되는 전인지(22·하이트진로)·김세영(23·미래에셋) 선수의 메달 경쟁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경기다.

세계랭킹은 전인지가 8위, 김세영이 5위에 올라있다. 전인지는 함평골프고(62회 졸업) 출신으로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가 하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의 살롱파스컵, 일본여자오픈까지 제패한 '메이저퀸'이다.

영암출신의 김세영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5승

을 쟁긴 상승세로 메달을 노리고 있다. 여자 골프 최종 라운드인 오는 8월 20일 밤부터 바하의 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를 찾아라=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큰 무대에 나선 지역 선수들을 찾아보며 즐기는 것도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다.

수영에서는 백수연·남유선(광주시체육회), 축구 이찬동·박동진(광주 FC), 펜싱 여자단체전 최은숙·강영미(서구청) 등이 광주 소속으로 올림픽에 나선다.

전남에서는 박경두(남자 펜싱·해남군청), 김현지·이유림(여자 하키·목포시청), 원영준(수영·전남수영연맹) 등이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또 영암 출신의 박철성(남자 경보·삼성전자), 김준홍(속사권총·국민은행·순천), 김장주(요트·인천시·여수), 이슬찬(축구·전남드래곤즈·순천), 김동준(축구·성남 FC·순천), 나야름(사이클·삼양사·나주), 김은아(핸드볼·SK수화클레이더즈·무안), 김선화(♀), 주희(♀·서울시청·무안), 김민정(여자 유도·한국마사회·여수) 등도 한국선수단에 포함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중치료실·멀티정글...KIA 함평 재활센터 개소

KIA 타이거즈가 함평 퓨처스 구장 켈린저스 필드에 재활·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KIA는 13일 켈린저스 필드에서 허영택 단장,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수석코치, 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IA 타이거즈 재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실내연습장 옆 부지에 증축한 재활센터는 기존 실내연습장 웨이트 트레이닝실(1층)과 연결되도록 지어졌다. 재활센터(2층)는 436㎡ 규모로 재활트레이닝실과 물리치료실, 수중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재활트레이닝실에는 선수들의 근력과 관절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등속성(CSMI) 장비와 일본 돗토리 월드윙 재활센터 장비, 멀티정글, 카이저, 트레이닝 등 트레이닝 장비가 완비돼 있다.

물리치료실에는 근관절 치료를 위한 초음파 치료기와 간섭파 치료기, 염증 제거용 냉각 치료기,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돕는 산소탱크 등이 구비됐다.



수중치료실에는 물의 온도와 깊이, 수류 등을 조절해 재활훈련을 하거나 뭉친 근육을 풀 수 있는 수중 트레이닝이 설치돼 있다. 수중 트레이닝에서는 3~4명이 동시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KIA는 선수단의 체계적 부상 관리를 위해 문영래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재활센터장으로 영입했다. 조선대병원 재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 교수는 스포츠 정형외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또

야구 전문 재활센터 근무 경험이 풍부한 윤인득 트레이너를 영입, 재활센터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KIA 관계자는 "첨단 컨디션닝 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까지 영입한 재활센터로 인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가 가능해졌다"면서 "선수들의 체력 향상을 돕고 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서 불펜 소화...윤석민 "괜찮아요"

덕아웃 T 특목

▲괜찮아요 =다시 공을 뜬 투수 윤석민의 표정은 밝았다. 어깨 부상으로 재활중인 윤석민은 14일 함평 켈린저스 필드에서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고질적인 어깨 통증으로 지난 4월2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윤석민은 지난 달 1일 투수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등판해 2이닝 4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지만 어깨 통증이 재발하면서 다시 재활군에 됐다. 윤석민은 "오늘 30개의 공을 던졌다. 몸 상태와 컨디션은 괜찮다"고 언급했다.

▲기대돼요=자신감을 채워가고 있는 투수 손영민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임의탈퇴에서 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손영민은 함평 켈린저스 필드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점점 피칭 개수도 올라가면서 70개 정도의 공을 던지고 있는 상태. 한국야구위원회에 따라 내려진 봉사

활동 시간도 착실히 소화해왔다. "예전보다 공이 더 좋은 것 같다"며 웃은 손영민은 "급하지 않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장된 타석이 적어=뛰는 감독 위에 나는 선수였다. 김기태 감독과 박찬호의 밑당에 웃음이 터졌다. 박찬호의 타격을 아쉬워하던 김 감독. 박찬호가 "지난해 이맘 때쯤에도 타율이 9푼 정도였는데 0.280까지 올랐다"며 큰소리쳤다. "그래서 시즌 마지막 타율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감독 질문에 말을 잊지 못한 박찬호. "감독한테 내기라도 해보라고 하러"는 감독에게 "보장된 타석이 적어 안 된다"고 응수. 이에 감독은 "지금은 한올이 형이 잘하고 있지 않나. 타석에서 이렇게 어필하라"며 껄껄 웃었다. 지난해 김 감독과 박찬호는 100만원의 상금과 무휴스 캠프라는 별칭을 놓고 점점 피칭 개수도 올라가면서 70개 정도의 공을 던지고 있는 상태. 한국야구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내려진 봉사

/김여울기자 wool@

김현수 전반기 팀 신인왕

설움을 이겨내고 불티모어 오리올스의 주전 외야수로 도약한 김현수(28)가 전반기 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인으로 뽑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로 올스타 휴식을 맞은 불티모어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김현수를 전반기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했다.

전반기 최우수선수(MVP)로는 3루수 매니 마차도, 최고 활약을 펼친 투수로는 잭 브리튼과 브래드 브라이 이름을 올렸다.

ESPN은 김현수가 시범경기에서 타율 0.178(45타수 8안타)에 그치며 4월 초만 해도 조이 리카드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것으로 보였지만 3개월 만에 반전을 이뤄냈다고 꼽았다.

이 때에 "3개월 뒤 김현수는 벅 쇼ALTER 감독의 거포로 사이에서 불박이 2번 타자로 자리를 잡았다. 5월 말부터 출전 기회를 늘려간 김현수는 170타석 이상을 소화한 좌타자 중 아메리칸리그 타율 5위(0.329), 출루율 6위(0.410)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